이 달의 과 소개

표준은 우리생활에 많은 혜택을 주는 약속입니다

권 영 수
표준기술기반국장
02-507-6643

안녕하십니까? 표준기술기반국장 권영수입니다. 먼저, "기술표준" 지에서 맨 처음 우리국을 소개하도록 지면을 배려해주신 원장님과 편집위원 분께 감사드립니다.

표준기술기반국은 5과 1팀 54명(표준기술기반과, 신기술인증지원과, 기계건설표준과, 정보통신표준과, 화학세라믹표준과, 전략기술표준팀)이 각자 담당하는 분야에서 전문성과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멘텀인 기업의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과 R&D, 특허를 연계한 업무, 인증기업의 구매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인증절차 도입과 인증제품의 품질 및 신뢰성 향상 추진 업무와 국제표준화 부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글로벌 표준화 인재 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표준 안에 살고 있으며 그 혜택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금은 교통카드를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토큰과 회수권을 들고 다녀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요금 따로, 버스 토큰이나 동전 따로 준비하고 다닌 것을 생각하면 참 편해진 것이 사실이지요. 교통카드가 전국적으로 호환 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용 카드인식시스템(SAM : Secure Application Module)이 KS 표준으로 제정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교통카드가 인식되어 환승은 물론 할인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표준은 국민생활의 편의향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표준기술기반국장으로 부임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기술표준원 업무와 직원들이 낯설지 않습니다. '98~'99년 산자부 품질디자인과장 재직할 당시 품질경영촉진법을 운용하면서 품질경영기본계획(법정계획)을 최초로 수립했고, 미국품질학회 주관 품질대회에 참석했던일, 그밖에 불법·불량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와 관련된 법령을 운용 하면서 힘들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또한, APEC/SCS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표준적합소위원회)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석하여 휴렛패커드의 설명을 듣고 표준의 중요성을 실감했던일 ('98년 당시 휴렛패커드는 정보기기의 표준선점을 위해 APEC/ SCSC를 활용했던 것으로 기억됨),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개정했던 일도 생각납니다. 그후 2001~2002년에는 기술표준원 기획관리과장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어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새로 만나게 되어 반갑고 힘을 모아 원장님과 동료직원을 잘 보필하고 기술표준원의 발전과 우리 모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표준기술기반국 각과를 소개합니다.

표준기술기반과를 소개합니다.

[좌측 위쪽부터 정장현 연구관, 김종윤 연구사, 양철웅 사무관, 조덕호 과장, 장주이 시험사, 임주연 시험사, 이응로 연구사, 박순영 연구사, 이민호 사무관, 남택주 연구관, 김용주 연구관, 진경선 연구사]

안녕하십니까? 표준기술기반과입니다.
혹시 표준기술기반과 업무를 잘 아시나요? 표준은 알겠지만 그이상은 "글쎄요" 하실 것입니다.

우리과는 표준기술을 대표하는 KS 및 ISO 인증제도 운영과 국가 표준기술력향상사업, 표준 전문인력의 교육 · 육성 · 지원, 민간표준활동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인식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입니다.

우리과 직원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환상적인 팀플레이로 일당 백 이상의 업무를 펼쳐나가는 기술표준원 최고중에 최고의 직원들로 모여 있습니다. 화통하신 성격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과를 꾸려 나가는 조덕호 과장님을 중심으로 성과관리업무, KS인증제도 및 심사원, 품질관리단체, 지정심사기관관리 등으로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남택주 연구관, 조용하면서도 핵심을 꿰뚫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박순영 연구사, 매사에 빈틈없이 ISO인증업무 및 KAB 등 산하기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김용주 연구관, 인간친화형 꽃미남 김종윤 연구사, 표준기술력 향상사업과 민간표준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이응로 연구사는 우리과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Brain!! 참신한 아이디어와 탁월한 기획력으로 물흐르듯 깔끔한 업무처리 능력으로 우리과 뿐만 아니라 기술표준원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죠, 그리고 여러 수식어가 필요 없는 숨은 일꾼 양철웅 사무관, 이민호 사무관, 정장현 연구관, 진경선 연구사, 김묘경 실무관 그리고 친절하고 아름다운 솔로 임주연, 장주이 시험사, 좌절보다 희망을 가지고 낯설은(KS와 ISO 업무지원)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한 임정택, 김대영 인턴 사원이 표준기술기반과의 멋진 멤버들입니다.

표준기술기반과 12명의 직원들은 오늘도 산적해 있는 많은 현안 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인증지원과를 소개합니다.

[좌측 위쪽부터 백종희 시험사, 김홍원 실무관, 박기환 사무관, 박태욱 연구관, 정의식 과장, 신홍섭 주무관, 김원석 연구사, 윤동섭 연구사, 이현주 주무관, 강현정 시험사, 양승배 연구사, 나기형 연구관]

신기술인증지원과는 '06년 6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부인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인증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직으로 신제품(NEP)인증을 비롯하여 신기술(NET)인증, 우수재활용(GR)품질인

증, 소프트웨어(SW) 품질인증 및 재제조제품(GRm)품질인증 등 5개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증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과 신제품의 실용화 촉진 등 인증기업의 자립경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임한지 한달도 안된 수려한 용모와 자상한 인품을 가진 정의식 과장님을 중심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적절히 조화되어 노련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우리과 멤버를 소개합니다.

인증업무의 민간이양과 우리원에서 가장 큰 행사인 신기술촉진대회도 으랏차 한방에 날려버리고 예산과 국회 및 지원업무까지도 마다않는 박기환 사무관과 예산과 결산 등 숫자생각만 해도 골치아픈 자료 작성에 밤샘도 마다않는 신홍섭 주무관은 정통부에서도 소문난 인재였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 공공구매건으로 허우적거리는 나기형 연구관과 양승배 연구사는 매일 들이대는 민원에도 끄덕없이 수습해 나가는 역량에 혀가 내둘러지며, 오늘 행운(?)스럽게 우리과에서 청운의 꿈을 펼치게 된 이현주 주무관도 7급 공채의 치열한 경쟁을 가볍게 뚫어버린 빵빵한 재원이죠. 엊그제 박령받은 박태욱 연구관과 김원식 연구사도 만능 스포츠맨에다가 박사학위까지 받은 막강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안광희 연구관, 오광해연구관, 윤동섭 연구사도 예리하고,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요. 또한 요즘 보기 드문 핸섬한 총각에다 정의의 사나이 김홍원 실무관,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온갖 잡다한 일을 싫다 않고 마무리해 주는 백종회 시험사, 늘 생글생글 우리과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강현정 실무관을 포함하여 모두가 우리과의 보배들이죠

쏟아지는 민원과 폭주하는 업무를 미감하고 가끔씩 하는 음주와 가무(?)의 자리에서 주고받는 소주잔으로 상호간의 화합을 다지며 내일을 충전해 나가는 우리 신기술인증지원과 직원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계건설표준과를 소개합니다.

[좌측 위쪽부터 김욱 연구관, 서광열 연구사, 여휘구 사무관, 오영주 인턴, 신문선 전문위원, 최지선 실무관, 김세진 과장, 박완용 사무관, 오동석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기계건설분야의 표준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 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기계건설표준과입니다. 먼저 기계건설표준과 업무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계건설표준과의 업무는 크게 산업기계분야와 토목건축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계부분은 절단 로봇분야를 비롯하여 산업기계에 사용되는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기계분야, 국민에게 편리함을 주는 승강기분야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건축분야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토목분야에 사용되는 토목자재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표준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일반산업기계분야와 토목건축분야에 대하여 표준 업무의 책임을 맡고 있는 기계건설표준과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유머감각으로 기계건설표준과를 이끌어 주시는 김세진 과장님과 함께 기계건설표준과의 업무계획 및 표준화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박완용 사무관, 학술연구업무, KS 통계관리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오동석사무관, 토목건축분야 민원업무에 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는 여휘구 사무관, 유공압분야의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김 욱 연구관 그리고 빈틈없이 민원업무를 처리하시는 서광열 연구사, 대한민국의 로봇 박사로 통하는 박광호 연구사, 유난히 숫자에 밝아 재물관리에 빈틈없는 최지선 실무관,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표준업무를 맡아서 척척하는 영어박사 신남경 전남위원, 우리과의 막내 귀염둥이로 통하는 오영주 인턴사원이 우리과의 빛진 일원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호의 희망을 싣고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표준전문가, 기계건설분야의 숨은 일꾼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표준과를 소개합니다.

좌측부터 김한식 연구사, 오정근 연구원, 배진석 연구관, 안주삼 연구관, 박인수 과장, 정민화 연구관, 기현종 연구사, 노학엽 연구사, 김은숙 전문위원, 강영식 연구사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 유비쿼터스를 향한 힘찬 날개짓이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향한 IT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정보통신표준과 인사드립니다.

저희 과는 정보통신분야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표준을 제정 보급함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IT가 접목된 문헌, 의료, 금융, 교통, 지리, 교육, ID, RFID, 멀티미디어, 사무기기 분야의 표준화는 우리의 생활속에서 그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으며, 홈네트워크, 정보통신기술, 정보보안 및 생체인식 분야의 표준화를 통해 우리의 꿈을 실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세계표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린 IT, 센서 네트워크, IT서비스분야의 적극적인 참여 및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표준 주도권을 갖고자 분골쇄신 애쓰고 있는 현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IT 표준의 기인, 박인수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소프트웨어 등 IT분야에 식견이 넓어 자타가 공인하는 IT전문가입니다. 특히 표준의 원칙(공개성, 합의성, 투명성, 일관성)을 삶의 철학으로 삼아 실천하시는 모습은 곁에서 볼 때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TV에 꽃미남 F4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F5가 있습니다. 외모, 실력 게다가 뜨거운 열정까지 갖춘 F5를 소개합니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표준을 담당하는 노학엽 연구사님, 우리 과의 든든한 허리로 팀웍의 구심점 역할을 한답니다. 깔끔한 외모에 이지적인 눈매를 자랑하는 김한식 연구사님은 컴퓨터 그래픽, 금융정보 표준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홍보 및 업무계획 등 궂은일을 도맡아 하셔도, 얼굴한번 구기지 않으세요. 우리의 강영식 연구사님, 지리정보, 전자문서처리 언어 등 핫이슈가 되는 표준마다 그가 있어 든든합니다. 부드러운 웃음뒤엔 꼼꼼한 김도와 철저한 분석이 있기에 가능하겠죠? 그의 단짝 기현종 연구사님, 정보보안, 생체인식, 교육정보 표준을 담당하고 연구용역 및 재물관리를 담당하는 서글서글, 성격좋은 귀염둥이랍니다. F5의 마지막 히어로, 계측 제어를 전공한 오정근 연구원은 KS 업무를 관리하는 몸짱 막내둥이랍니다.

F5만 있는가? NO~, 우리 과에는 똘똘이 스미프, 투덜이 스미프, 자연이 스미프 그리고 나, 스미페트가 있습니다. 정보통신표준과의 버팀목이 되시는 이분들은 일당 백으로, RFID, 교통정보 표준 및 우리 과 업무를 총괄하시는 스마트의

상징 정민화 연구관님, 실력과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홈네트워크 및 분자코드의 전문가 배진석 연구관, 뮤헌정보, 의료정보 및 그린 IT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주삼 연구관님을 비롯하여, 국제표준업무의 도우미 김은숙 전문위원이 함께하고 있어 더욱 든든합니다. 꿈꾸는 사람들(정보통신표준과)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이끌어줍니다.

화학세라믹표준과를 소개합니다.

[좌측부터 안병국 연구사, 이길호 사무관, 이용무 연구관, 조정환 주무관, 명영찬 연구관, 신민주 인턴사원, 김은영 실무관, 주소령 과장, 박진영 전문위원, 유연옥 연구사]

안녕하세요? 화학세라믹표준과입니다. 우리원에서 유일하게 남녀직원이 황금비율을 이루어 근무하고 있는 꽃남 · 꽃녀의 베카 화학세라믹표준과를 소개합니다.

화학세라믹표준과는 플라스틱, 정밀화학, 고무, 색채, 도료, 세라믹소재 표준을 중심으로 우리 생활의 필수요소인 화학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및 그린화 지원을 위한 표준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주도의 국제표준을 확성화하고, 공공 · 기반시설과 관련한 화학제품의 표준화를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성장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산업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학세라믹표준과의 꽃남 · 꽃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미소 뒤에 숨겨진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과를 이끌어가시는 주소령 과장님, 과업무 총괄과 요업제품 표준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원의 베스트 드레서 이길호 사무관, 차분한 발투로 골치아픈 민원인들을 한방에 해결하시는 플라스틱 표준의 달인 이용무 연구관, 차세대 성장동력인 그린화학산업의 선봉장 젠틀맨 명영찬 연구관, 고무산업은 내가 책임진다! 고무산업의 베테랑 전문가 안병국 연구사가 계십니다.

또한 색채와 도료 표준을 책임지는 애교만점 예비엄마 유연옥 연구사, 이제 막 화학세라믹표준과 꽃남 대열에 합류하신 기대되는 차세대 주자 조정환 주무관, 세라믹소재 표준과 예산집행관리 등 화학세라믹표준과에서 없어서는 안될 의리파 김은영 실무관, 화학세라믹분야 국제표준업무를 담당하는 일등 신부감 박진영 전문위원, 표준화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화학세라믹표준과의 어여쁜 마스코트 얼짱 신민주 인턴사원이 화학세라믹표준과의 멋진 인원입니다.

화학세라믹표준과 10명의 직원들은 우리나라 화학산업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맡은 임무를 완수하고 있답니다.

전략기술표준팀을 소개합니다.

[좌측 위쪽부터 이석우 연구관, 오기수 연구관, 박주승 과장, 채경수 연구관, 배계영 인턴사원, 장상일 인턴사원]

안녕하십니까? 전략기술표준팀은 '08년 9월에

신설된 팀으로서, 말 그대로 기술표준원의 전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술표준원의 내로라하는 최고의 브레인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우선 전략기술표준팀의 주요 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기술표준팀은 산업기술개발사업 분야별 표준화에 대한 기술기획 및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주요 중장기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실사 및 진도점검, PD제도가 운영되는 과제의 표준화를 지원하는 표준 PD 역할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표준과 특허의 중요성이 나날이 중대되어 가는 현실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기술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특허에 관계된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전략기술표준팀의 브레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계시지만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는 유머감각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박주승 과장님, R&D사업과 표준화연계 및 R&D사업 진도점검 업무를 맡은, 듬직한 체격만큼이나 호탕한 웃음으로 사무실 분위기를 띄워주시는 이석우 연구관, ICT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표준 PD를 지원하고 R&D 추적평가 연구를 위해 항상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채경수 연구관, 표준특허 창출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막내 연구관으로서 사무실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오기수 연구관, 높은 경쟁률을 뚫고 기술표준원의 인턴으로 들어온 장상일 인턴사원, 전략기술표준팀의 홍일점인 배계영 인턴사원까지 우리 6명의 팀원은 모두 업무적인 지식과 일처리 능력은 물론, 인간성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하면 적다고 할 수 있는 6명의 인원이지만, 오히려 그 덕에 끈끈한 유대감으로 똘똘 뭉친 전략기술표준팀은 앞으로도 기술표준원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